

이 공부하는 데는 좀 늙름하고 지혜와 인내가 있어야

☞ 21면에서 계속

답답하게 해서 나가서 바람 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 마음이 아니예요. 이게 자기 집을 비워놓았기 때문에 난 늙이 들어와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니 그걸 알고 절대 그러지 말라 이거야. 속지 말고. 그러나 '주인공' 만 늙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늙이니까.' 하고선 웅광로에다 넣는다면 거긴 그냥 한 늙밖에 없어. 그 한 늙도 여러 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한 늙도 한 늙이란 말을 못하리만큼 돼 있지만 말야.

그러나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어. 내가 가난을 면하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 화복을 가져오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 지손들을 잘 두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어. 젊은이들 중 아직 어린애를 낳지 않은 사람들

아다니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는 또 움 죽거리고.

그러니까 지나 깨나 숨을 쉬고 있으니 시공이 없이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는 과거로 지나간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거름 삼아서 내가 깨친다면 부처님의 그 높은 뜻은 내 몸을 갈아서, 정말이지 내 몸을 갈아서 실을 꼬아 직진을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바쳐도 거기에 다 못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름 삼아서 내가 만약에 깨친다면 그 부처님과 진짜 틀이 아니요, 진짜 선배 후배가 아닌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만 가지 팔자 기에서 한 강으로 물줄기가 다 흘러드는데, 풍물이든 구정물이든 빗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다 모여서 어여하게 마다하지 않고 흐르더라. 그런데 거기에 고기와 용은 그저 들락날락 자유스럽게 놀고 있더라. 그것은 어떠한 연고인가? 한번

보고서 그때서야 '아이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스님 찾았습니다. 스님!' 이랬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 소리를, 그 대답을 못한 스님이나 그 말씀을 하고 간 스님이나 물이 겠습니까? 무슨 까닭에 그걸 보고서 (순바닥으로 법상을 쳐 보시면서) "아이고, 찾았군!" 했는가 말입니다. 그 팔자 풀는 걸 보고서 그 술 안의 물이 말랑말랑한 걸 알았겠느냐 이 소립니다.

천찰백 공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삼천대천세계 어느 것이 화두 아닌 게 없고, 어느 것이 법 아닌 게 없고,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공안 아닌 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으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똑바로 일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기다리니가 단정이다 명상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 가 하면 단 데로 나가고 있어. 기껏 가르쳐봐도.

본래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응어!" 하고 나왔으면 그걸 같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화두입니다. 어느 어린애든지 나올 때 "응어!" 하고 소리 안 지르고 나오는 애가 없어. 그리고 물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애가 없고. 내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야! 그럼 같아야지! 그게 화두라. 내가 난 게 화두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리고 생활하는 것이 참선이야. 일본일초도 끊어지지 않는 참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는 게 참선이야. 그냥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한 구멍에서 나니 두드러지지 않고 줄지도 않더라.

여러분은 날더러 "스님은 경전에 있는 심오한 뜻은 얘기 안 하고, 왜 이렇게 만날 저런 얘기만 할까?" 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술 안에 넣고 그 술 안의 자갈은 말랑말랑하게 익었겠지?" 한 거는 뭐며 팔자를 쭈는 걸 보고서 (법상을 치시며) "아이고, 이제는 익었구나!", 물이 익었다 이거야. 물이 그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몸은 살려놓고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을 살려놓고 미지의 저승세계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애길 하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도리를 다 알고서야 산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똑바로 할 수가 있고, 똑바로 자비를 베풀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모르고서야 어찌 공급을 할 수가 있으며, 길을 인도할 수가 있으며 또는 여러분의 눈을 떠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밥은 내가 대신 먹어줄 수 없지만, 그 밥을 먹게끔 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자기가 해 먹어 봐야 해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해 먹을 수 있는 물리를 터어주게끔 해줄 수 있지요. 그렇게 같이 마음을 내줄 수 있는, 하나가 돼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광력·전력·자력 이런 게 다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얘기만 듣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뭐, 만담하는 식이게요. 그런 소용없는 거라. 어느만큼 얘기

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서도 힘이 없어 하느냐? 그만큼 물이 아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 그만큼 네 아픔과 물이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거기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 한마디 하고 그만 고치겠습니다. 산 사람 앞에서는 절을 한 번을 하고, 죽은 사람 앞에는 두 번을 하고 부처님한테는 세 번을, 삼배를 올립니다. 내가 이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자기에서는 자기란 늙이 일할 때마다 착착 나와서 부(父)와 자(子)가 틀어 아니게 돼. 그렇기 때문에 행도 같이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로.

어느 시골 선비가 대원군한테 찾아갔어요. 찾아 갈 때는 꼭 뭐나 할까 하고 간 거는 아니예요. 가서 며칠을 기다려서 보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말입니다. 본격만 책만 단 말입니다. 절을 하는 걸 봐야 될 텐데 본격만 책하고 본 통만 등

이놈! 내가 변연히 다 아는데, 내가 보지 않았을 까 하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한 거는 분명한데, 네 늙이 너무 침착하고 대답한 걸로 봐서 한번 할 늙이야. 그러니 원으로 가서 자비를 베풀면서 앞으로 군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대장을 해라." 했답니다.

그래서 절 두 번 하고 참, 글썽 보지 않았는데도 그만했으니 그대로 그만이지만, 두 번을 했어도 두 번 했다는 걸 그렇게 변명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저 늙름하게 그렇게 대변에 그런 대답 못합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호통을 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나오니까, 여간한 사람 쳐 놓고는. 그러나 얼마나 그 지혜가 풍부하고 참 늙름합니까, 아무리 시골 선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자인 남자인 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거는 태어났으니깐 그 모습 그대로 행은 하지 마는, 좀 더 늙름하게... 아, 마음이야 뭐 여자 남자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모습은 여자 남자가

천찰백 공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삼천대천세계 어느 것이 화두 아닌 게 없고, 법 아닌 게 없고,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공안 아닌 게 없어!

은 이 소릴 잘 듣고 잘 해야 돼. 날기만 하면 자식 인가? 자식이 아니지. 인과 업으로 인해서 원수로 만났다면 절 그럴정그렇, 만날 화복하지 못하고 이거는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나고 복장을 쳐야 옳으니 말야.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한 두 건 본 것이 아니예요. 한 집에 그러니까는 불구가 셋씩, 넷씩 되는 집도 있어요. 다섯 식구가 사는데 한 사람만 남게 놓고 불치의 병을 냐이 다 알고 있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어떠한 공직에서도 도대체 승진이 되질 않아, 자식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데는 스님네가 따로 없고 속인이 따로 없고, 여자가 따로 없고 남자가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어. 여러분이 부처라고 하지만 속의 중생들이 운행을 해줘야 부처가 있지. 자기 부처를 자기가 형성시켰으니 자기는 운행을 해줘야만이 그 부처가 자기와 더불어 같이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말야.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별성일 수도 있고 혹성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어. 한시도 몸뚱이는 쉬지 않고, 배는 쉬어 놓고도 자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밤이면 기껏 들

일러보시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들락거리고 자유스런 그 용은 오백 비구를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석조까지 죽였더라. 이것은 또 무슨 연고냐? 대답해 보실 분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예전엔 천찰백 공안이 아니라더라 그런 일이 많았죠. 어느 스님께서 조용히 산등성이의 돌 위에 가서 떠어 앉아있으리니까 어느 노승이 지나 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자네, 앉을 때가 옳은가, 앉았다 일어날 때가 옳은가?" 하더라. 그러니까 "앉고 서고 그런 게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하니까 "허허, 그래! 그러면 술에 넣어서 폭 삶은 자갈은 물렸겠지?" 하거든. "술에 넣어서 폭 삶은 자갈은 익었겠지?" 도대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경이라는 것은 다 봐도 그런 문구가 없어. 그 스님을 찾으려고, 경을 다 버리고 찾으려고 애써도 이렇듯 성도 묻지 않은 것도 실책이고, 그 스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동짓날이 됐더라. 동짓가 됐는데 마당에다 큰 술을 걸어놓고선 팔자를 쭈고 있거든. 팔자를 쭈면서 큰 주걱으로다가 휘휘 쪼개거든. 그런데 그 팔자가 벌렁벌렁 풀는 걸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니는 것도 내가 가난을 면하는 것도,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지손들을 잘 두는 것도 모두 내 마음에 달려 있어!

했거든. 그래서 또 한 번 했지요. 아, 그랬더니 그냥 아담법석이 난 겁니다. "저놈이 산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한테 하듯이 절을 두 번씩이나 했다. 저놈 잡아 죽여라."라고 하니까 "어이 휴!" 그 시골 선비가 웃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이 소릴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허허허. 좀 늙름하고, 지혜 있고, 좀 더 인내가 있고 탄평(坦平)해야 돼요. 아주 복잡다단하면 안 되죠, 느긋하고. "아, 왜 그렇게 급하시니까?" 하도 바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절을 하고 또 재차 절을 한 까닭은 앞서는 들어온 절이고 이전 나갈 절인데, 헤헤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성미가 급해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원군이 가만히 생각하니 냐다 그냥 (순바닥을 서로 부딪쳐 보시고) 맞았던 말입니다. 한 방 언어결렸단 말이야. "아, 그렇게 급하신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나라 일을 하십니까?" 했거든. 시골 선비가.

그러면서 심그레 웃고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대원군이 한 대 언어맞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 하인더러 "저 사람 불러들여라." 불러들였거든. 허허허. "너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저 늙름하게 태연하게 아주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이 공부해 해야죠, 공부 할 것도 없지만, 아노, 공부라고 하기는 오히려 참, 보잘것없는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르는 데 조금도 쉬지 않고, 부처님을 볼 때는 부처님과 틀어 아니요, 형상도 나하고 틀어 아니요, 마음에 나하고 틀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 어디를 가서 책을 보더라도 어떤 늙이 이 책을 보는가? '주인공야!' 불러놓고 경을 보되 '네가 보는구나!' 하고선 보라고요. 그에게서 만약에 그것을 보고서는 그냥 이걸 이렇게 저런 저렇고, 저승에 가기 전에 그냥 가는 도중에 그러하면 저승엔 못 들어가요.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요. 그 마음이 막혀서 못 들어간다고요.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7년 8월 16일 정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氣功 지도사강좌 (3박 4일)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난치병이 치유된다
통증의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통증 고친다

수련일정 | 68기 : 8월 23일(목) ~ 26일(일)
69기 : 9월 13일(목) ~ 16일(일)

디스크, 협착, 측만, 만곡, 허리통증, 어깨통증, 좌골통, 골반통, 관절통,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 자율신경실조증, 불면증, 노실금, 수족냉증, 복부비만 등

- ◆ 물리치료, 약물치료, 척추교정, 침, 뜸, 부항을 통하여 다소 호전되었으나 진전이 없다.
- ◆ 유명하다는 곳을 다 다녔으나 당시뿐이고 노력해도 치유가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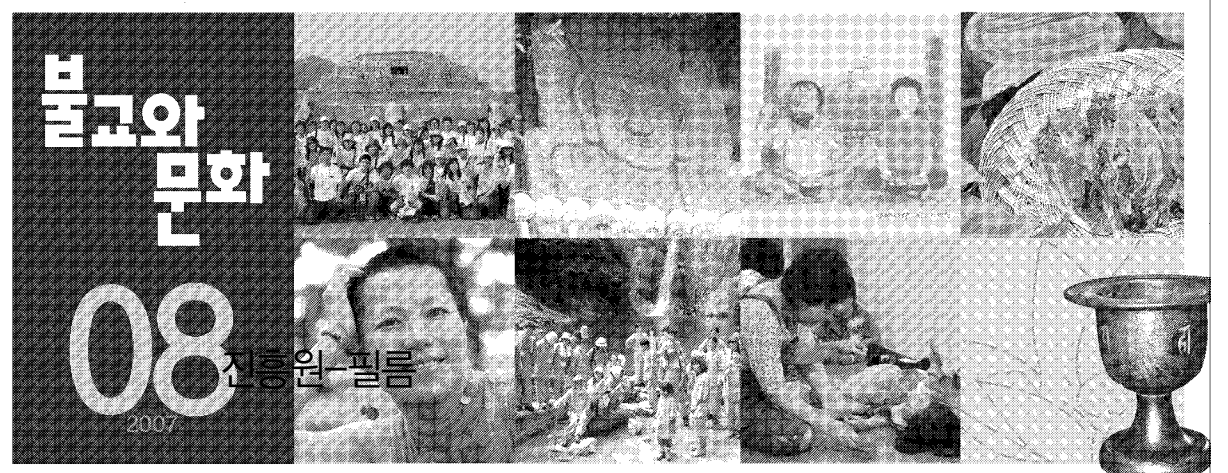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임상시험 인정증 획득!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각지에서 불자님들과 수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www.chgg.co.kr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분회 :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 자리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2,500원 착불)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현장 속으로
1.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고구려 역사 유적 탐방기
2.내소사 트레킹 탐방 스테이
연속기획 | 행복 [신] - 실천(행)하는 행복
괴물(은)는 것은 무엇인가
임상에서의 수행, 수행을 즐기자
사람에 따라 수행방법이 다르다 - 교섭(교섭)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내가 행복하다 - 열반·정·사정·음양 수행, 절을 찾는 이유
특별 기고 | 정명 스님의 미얀마 파옥 명상센터 수행기
소스가 정찬주의 명상여행 | 인도에서 만난 팔상목(인산修通佛)
생활교도 가이드 | 우린본절은 무슨 날입니까
신행 365 | 2007 청정운통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연명정에 피어나는 연꽃 | 원주 명승사
술길 | 포항 오사사 원효암 가는 길

문태준 시인의 자유모토에세이 | 웃음이 눈물을 말리듯이
태미가 있는 사할, 그곳에 가고 싶다
서해 제일의 관음기도 도량 식도도 낙가산 보문사
집중 인터뷰 12 | 리케이 댄스 예술감독 이정은
2007 문화기획 |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찾아서
가야산 해인사 백련암의 상주불독진과 상주불독금지
사건 윤재림이 추구하는 절법 | 평생의 도반과 화연사의 절법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 | 칠왕사박물관
도교통신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연을 누린다, 일본의 정원 문화
향기로운 사람들 | 목동 법안정사 부부원장회 봉사팀
독자들 서상 | 정찬원이다 · 가장 행복했던 순간
숫자로 보는 불교 | 기록이 무엇 가치를 갈구하듯이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실천(수행)
별지 | 하루에 돌아보는 지역 문화기행 8 / 경기도 화성시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불교와 문화』 문화사업팀) www.buddhistculture.co.kr